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내용 :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민자당사앞 시위에 관한 건

1.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의 파장이 정-경-관이 망라된 부패의 그물망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이 부패의 뿌리는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시민들은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감과 절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국민 모두는 이 기회에 모든 권력형 부패비리가 완전히 밝혀지고 근절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현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노 비자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자신에게 미칠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3.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 되거나, 정치적 타협으로 미봉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고 권력형 부패비리의 오랜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사회전체의 단호한 용기만이 이 거대한 부패유착구조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保身の 그늘에 숨어있는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5 참여연대 모든 회원과 함께 온 국민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선자금공개를 촉구' 하는 민자당사 앞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일시: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12시--1시

2.장소: 여의도 민자당사 앞

95. 11. 1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 오재식

